

이인영 "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 진입 할 것"

파이낸셜뉴스 입력 : 2021.01.05 06:00 수정 : 2021.01.05 06:00

이인영 장관 "상반기 협력 중요"

바이든 정부에 기대감도 내비쳐



[서울=뉴시스]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열린 2021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2021.01.04. (사진=통일부 제공)

photo@newsis.com /사진=뉴시스

[파이낸셜뉴스]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"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다면 하반기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것"이라고 전망했다.

이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2021년도 통일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"(지난해는) '작은 접근'을 통해 쉽 없이 평화의 문을 두드리며 대화와 협상 국면을 열고자 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남북간 악재에도 몇가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취했다며 사례를 들기도 했다.

이 장관은 "(북한이)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그나마 한 고비를 넘겼

다"며 "(서해 피격 사건은)북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하고,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유화적 대남메시지를 남겨 작지만 남북관계 진전과 정세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다"고 말했다.

또 이번 1월에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(1월 초순),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(1월 20일) 등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대형 이벤트와 정세의 변화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대감도 드러냈다.

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"북한이 우리에게 대해 보다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기대한다"며 "기회의 시간으로 향하는 좋은 정세의 출발을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"이라고 말했다.

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"새해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좀 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던 북한도 다시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는 다시 또 굴러가게 될 것"이라고 당부했다.

vrdw88@fnnews.com 강중모 기자

※ 저작권자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[인쇄하기](#)[취소](#)